

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바위(간코코시카케이시)

석상에 물을 끼얹으며 기도를 하는 미즈카케 부동존 발밑의 바위는 일본 역사에서 전설적인 인물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(845~903년)가 일찍이 휴식을 취했던 곳이라고 합니다. 미치자네는 우다 천황(867~931년)의 치세 중에 관료로서 조정에서 이름을 떨친 지식인이었습니다. 그러나 901년, 미치자네는 권력 다툼에 패해 규슈의 다자이후로 좌천되었습니다. 미치자네는 교토를 출발하기 전에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우다 법황(천황이 퇴위 후 출가한 경우 '법황'이라고 부름)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우다 법황이 초대 주지로 있는 닌나지 절을 방문했습니다. 그러나 우다 법황은 근행으로 바빴기 때문에 미치자네는 하루 종일 이 바위 위에 앉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. 결국 우다 법황을 알현하지 못하고 일어난 미치자네는 다자이후에서 사망했는데, 그 뒤 교토는 역병과 자연재해에 계속 휩싸였습니다. 이 재난들은 미치자네가 내리는 재앙이라고 하여 조정에서는 즉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타노텐만구 신사를 건립했습니다. 현재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는 텐만구 신사는 일본 곳곳에 있으며, 미치자네는 학문의 신으로서 숭상받고 있습니다.